











# 9.18사변과 조선전쟁을 통해 본 제국주의의 고유한 본성

제국주의가 자기의 더러운 물골을 지구상에 드러내놓은 후 세계는 그 이전 시기보다 더 많은 전쟁의 소용돌이속에 빠져들었다. 제국주의국가들은 세계 곳곳에 존재하였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비록 시기와 지역, 인종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은 있어도 제국주의국가들은 전쟁을 도발함에 있어 다 같이 제국주의의 고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일제 1931년 9월 18일에 일어난 9.18사변과 미제가 1950년 6월 25일에 도발한 지난 조선전쟁을 놓고 그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들, 9.18사변과 조선전쟁이라는 서로 다른 두개의 전쟁에서 일맥상통한 점을 찾아보게 되는데는 두 전쟁 9.18사변과 조선전쟁은 개시되었다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그 두 사변을 도발한 인가들의 범모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고유한 교활성과 파렴치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성과 지배주의적본성을 다같이 찾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일명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9.18사변은 일본제국주의가 중국 동북지방을 먹기 위하여 불의에 무력침공을 강행한 사건이다. 9.18사변과 지난 조선전쟁은 도발자와 도발대상만이 다른뿐 아니라 제국주의국가들이 일으켰으며 그 도발수단의 교활성과 파렴치성, 지배주의적본성을 폭로해주는 전쟁이라는 점에서 똑같다. 두 전쟁은 모두 선제공격 없이 불의적으로 개시되었다. 이 사실은 제국주의국가들이 전쟁을 언제 어디서 일으킬지도 예고하지 않고 항상 예상치 않게 불의에 도발한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도발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도발조직자들을 미

리 배돌린것은 두 전쟁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공통점이다. 9.18사변때 일제는 당시 일본만 철위사소속의 첩도를 폭파하고 그 책임을 중국측에 넘겨놓은 다음 선전조교없이 동북지방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일본판공공특무부관이 바로 이러한 모략을 조작하였다. 그 당시 일제는 9월 18일 밤 무력침공을 일제히 전개 이틀 초작한 주모자를 《출상》보내었다. 저들이 9.18사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것을 보여주고 연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50년대 조선전쟁을 도발할 때 미제도 일제와 신뢰의 똑같은 모략을 꾸었다. 당시 미국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전쟁도발정약에 주발유가를 보낸다고 하면서 자기 발발을 가졌었다. 그 시기에 이상하게도 미국정권의 두번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무장관 애치슨도 자기 소수의 농장에 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도서 《조선전쟁:대담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그것은 이상아못한 일이었다. 전쟁정약에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둘 다 퇴출하였던 것이다. 국무상에 모여 온 중간급의 관리들은 정책결정자들이 아니라 장관급의 명령을 집행하는 사관들이었다. 후에 미국은 이것을 뜻밖의 놀라움 일로 접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초기행동들을 판단해볼 때 여기에는 확실히 음모적일만 있다.》

물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대통령이 주발, 월발, 년말휴가를 갈 수 있게 되어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트루먼일 경우에는 좀 달랐다. 그는 내각도 졸업하지 못한데로 부터 누가 자기를 업인여겨지 않는가고 신경을 쓰면서 모든 일에 간참하였다고 그러다보니 집권기간 백악관을

별로 쓰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였다고 한다. 그는 주말휴가를 언제나 누구도 모르게 집안에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즐겼다고 한다. 그러나 트루먼이 조선전쟁이 일어나기 전날인 6월 24일에는 주말휴가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소식을 신문에 크게 내리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당시로서도 의문을 자아냈지만 훗날 그것이 조선전쟁도발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를 가리키기 위한 연막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조선전쟁도발계획을 꾸민 장본인들이 모르쇠를 하며 제자리를 떠나 만물에 가 있는 것은 일제가 9.18사변때 같은 조작한것들을 미리 배돌린것과 같은 교묘한 연극이었다. 연극을 세 뒤에 전쟁도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고 그것을 구실로 자기의 침략적인 행위를 정당화해나선 것 역시 두 전쟁에서 나타난 일맥상통한 점이다. 일제는 일본만철위사소속의 첩도를 장척항공군에 폭파하고 일본수비대를 공격했다는 허무맹랑한 구실을 내걸고 불의에 침공을 개시하였다. 미제도 역시 남조선피괴군으로 하여금 38°선지역에서 공화국반군부를 침공하게 하고는 《북조선이 남침하였》고 《유엔》의 기발을 들고 조선전쟁에 개입하였다는 길을 뚫었다. 렉사는 비반복적인 사건들의 무적이 라고 하지만 그 개개의 사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 공통적인 경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렉사사실들은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기 위해 모략적인 간계를 꾸미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침략전쟁도발수법이라는 것을 은연히 실증해주고있다.

안 철 권 오늘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세계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제국주의적인 나라들을 비롯하여 저들의 세계제배전략실현에 방해로 되는 나라들에 대한 러무니없는 간섭과 비난, 선제공격 행위를 끊임없이 벌이고있다. 이것은 명백히 이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전두부이다.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반제국주의적인 나라들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괴인》으로 오도하고 자기는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는 《평화의 수호자》로 미화보신함으로써 저들이 세계 곳곳에서 강행하는 침략전쟁들을 정당화하고있다. 지난 시기 미국이 이전 유고슬라비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 등 여러 나라들을 《인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범죄국가》로 몰아 침략전쟁을 일으킨 사실들이 그를 증명해주고있다. 명백한것은 전쟁발발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파렴치한 침략수법은 언제나 오늘날이나 변함이 없는것이다. 그것은 교활성과 파렴치성이 제국주의의 고유한 본성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무대에서 아무런 정당성을 오도하고 자기를 정당화해보려고 행동해도 그것은 순바나만 한 가랑이로 자기의 벗겨졌은 알몸풍미를 가리워보는 부질없는짓이다. 지금은 렉사사실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상투적인 침략수법은 반제국주의적인 나라들로 하여금 그 언제나 자들의 교활한 책들을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견결히 맞서싸울것을 요구 하고있다.

#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방상 강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방상 강조

우리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라오스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을 뜨겁게 느낀수 있다.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는 선대수령들이신 카이손 총리님 동지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셨다. 또한 총리님께서 이 나쁜 동지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키워주신 관계이다. 라오스인민은 반미구국항전을 벌여온 시기에 조선으로부터 사십없는 지원과 원조를 받았다. 격변하는 세계정세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전우이며 형제인 조선인민과 함께 서있을것이다. 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라오스와 조선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과 기여해준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 단세!

《동북아시아에 비핵, 평화의 확립을, 일조국교정상화를 요구하는 련락회》 총회 진행

《동북아시아에 비핵, 평화의 확립을, 일조국교정상화를 요구하는 련락회》 총회 진행

1960년대 말 비밀작전계획 《식물종계회 1968》을 작성한 남조선의 강경 미군은 퍼괴군을 내몰아 군사분계선 15.5mile선에서 8만여에 달하는 고염제를 대량 살포하여 비무장지대를 독재물로 오염시켰다. 고염제살포시 2만 6000여명의 퍼괴군사병들에게 맨손으로 고염제를 걸잡모에 담아서 부러게 하여 그들중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피해자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1974년말부터 독재물인 KRH-777을 《식물종계회》이라는 상표를 달아 남조선에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 100여명을 상대로 인체실험을 하면서 그 효용성을 측정하는 친인공노당 살인행동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미제의 화학무기사용범위를 좁히려는 것이 아니다. 지난 조선전쟁시기와 전후 수십십년째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재난과 불행, 고통을 불어넣어 미제는 최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 철천지 원수 미제가 또다시 침략의 불길에 빠진다면 우리 인민과 인민을 해대할수 있는 복수의 불벼락을 안고고야할것이다.

김 수 진

## 레오반대투쟁을 강화할것을 호소

레오반대투쟁을 강화할것을 호소

레오반대투쟁을 강화할것을 호소

## 총기류범죄

총기류범죄

## 미제는 두발 가진 승냥이

미제는 두발 가진 승냥이

## 살인마 무리

살인마 무리

#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미국의 반인민적인 선거제도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미국의 반인민적인 선거제도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미국의 반인민적인 선거제도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미국의 반인민적인 선거제도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미국의 반인민적인 선거제도